



정교회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루가 제 11 주일 주님 선조들의 축일

성 다니엘 주상 수도자

성 루카스 수도자

(제1조 • 조과 부활 복음 4)

* 조과에서 성탄 카타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제1조 부활 찬양송 81

주님 선조들의 축일 찬양송..... 188

성당 찬양송

성탄 대림절 시기송 208

사도경 : 골로사이 3,4~11 362

복음경 : 루가 14,16~24 마태오 22,14

....130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사도 바울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나약함은 신자들에게 오히려 유익을 가져다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뛰어난 능력과 지혜와 자격을 갖추고 설교한다면 아마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자신의 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지요.

그러나 사도들의 나약함을 알고 있다면 귀중한 영적 보물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사도에게서 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복음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티리오스 대주교 강론 중에서

성만찬으로의 초대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만찬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치시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하느님의 왕국에서 벌이는 성만찬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둘째,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초대에 응하여 구원의 식탁에 함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선하시고 자애로우신 하느님께서 풍부한 사랑으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시며 많은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고 했습니다. 많은 음식과 선물을 준비하고 자기 종을 사람들에게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세상에서의 큰 잔치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의 성만찬식을 의미하신 말씀입니다. 사제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 아름다운 문에서 성작을 높이 들고 “하느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과 믿음과 사랑으로 가까이 올지어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교인들을 주님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해야 합니다.

1) 하느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종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닌 하느님에 대한 경건함과 존경으로 다가갑니다.

2) 믿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 받는 성체와 성혈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되신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라는 절대적이고 확신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대적 믿음이 없이 성체와 성혈을 모실 때는 오히려 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사랑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 가까이 올지어다

위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거룩한 주님의 성찬식에 동참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탄생을 맞을 준비를 하며, 금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욱더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성사를 통하여 죄를 사함 받고, 성탄 대림절을 끝까지 영적으로 의미있게 보내서, 주님의 거룩한 탄생을 잘 맞이해야겠습니다.

영적인 전쟁 2

아타나시아 봉사자

사도 바울로는 자신의 영적인 투쟁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국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 속으로는 하느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 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 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 줄 것입니까? 고맙게도 하느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로마서 7,15~25)



영적으로 투쟁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희망

많은 고백자들이 적지 않은 실망감 속에서, 자신들이 같은 죄를 다시 짓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죄를 고백하기 위한 그들의 고백성사는 반복되며, 자신들에게 변화가 없거나 영적인 삶의 진보와 발전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습관적이고 상습적인 자기들 죄의 본질과, 고백성사 때 자신들이 앞서서 고백한 것과 같은 종류의 죄를 매번 다시 인정해야만 한다는 사실 때문에 크게 낙심합니다. 자신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은 죄에 계속해서 빠져버리고 맙니다.

성 베드로 다마스쿠스인(11세기, 시리아인 수도사)은 같은 죄를 반복해 지으면서 고백성사에 고착되어 있다고 느끼는 죄인에게 아래의 가르침을 통해 약간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유혹에 맞서서 투쟁해야 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평정심(정념에서 해방된 상태)을 얻기까지 우리들 대부분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클리막스 성인(6-7세기, 시나이의 수도자)이 말한대로, ‘모든 사람이 완전한 평정심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회개와 고백성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님과 울산 성당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축일을 맞이하시는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님과 17일(토) 축일을 맞이하는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간 예배 안내

* 12월 17일(토)

성 디오니시오스

에기나의 주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 추도식

안식 6개월을 맞아, 오늘 모든 성당에서 성찬예배에 이어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소식

■ 양구 성당 철야 예배를 마치며

성 안드레아 첫 사도 축일 기념 철야 예배가 지난 2일(금)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3일(토) 아침에는 1시 과와 설교가 있었습니다. 참례자들은 귀갓길에 가평 수도원에 들러 제설 작업과 청소 봉사를 했습니다.

■ 서울 성당 축일을 보내며

성 니콜라스 미라의 대주교 축일을 적절한 준비 속에서 무사히 경축했습니다. 4일(주일)에는 성인의 성화와 성화를 성당 중앙에 모신 뒤, 많은 신자 특히 신데즈모스 청년들의 참여로 성당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성탄 장식을 했으며, 5일 저녁과 6일 아침에 각각 성찬예배를 드렸습니다. 도와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현장

표지 사진 설명



예수께서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하고 물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하고 물으셨다.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시몬 바르요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하고 말씀하셨다.(마태오 16,13~17)

필립보의 가이사리아(Caesarea Philippi 사진)는 높이 2,814m의 헤르몬산 기슭에 위치한 경치가 빼어난 곳으로 갈릴래아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해발 1,000m 이상의 골란고원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고지대이지만 땅이 비옥해서 '소들이 살찌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약 시대에는 바산(Bashan)으로 지금은 바니아스(Banias)로 불린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기원전 20년경에 이 지역 일대, 곧 헤르몬산의 남쪽 지역을 헤로데 왕에게 통치하도록 했다. 헤로데 왕의 아들 헤로데 필립보는 기원전 2년경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필립보의 가이사리아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황제의 도시란 의미의 가이사리아와 구별되도록 한 것이다.

필립보의 가이사리아가 순례자들에게 중요한 방문지가 되는 이유는 베드로가 그곳에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는 교회와 관련된 유적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